유럽에 전남 농수산식품 판매장 개설

전국 지자체 최초…오스트리아 판아시아매장
보성녹차 등 입점…연 120만 달러 수출 기대

전남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있는 판아시아(PanAsia) 매장에 전남 농수산식품 유럽 상설판매장 1호점을 지난 7일 개설했다.

개소식에선 정종완 판아시아 회장과 박종범 영산그룹 회장, 임창노 오스트리아 한인회장, 윤종석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문화홍보관, 유병우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유럽시장 첫 전남 상설판매장 개설을 축하했다.

전남 상설판매장에는 보성녹차, 구운김, 담양한과, 해초국수, 표고 등 15개 사 62개 전남산 제품이 입점했다.

10월 중 장흥 아르미쌀을 포함해 15만 달러 상당의 2차 추가 물품이 선적될 예정이다. 앞으로 상설판매장을 통해 연간 120만 달러 이상의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기대된다.

오스트리아 전남 상설판매장 운영기업인 판아시아는 아시아 식품의 직수입을 통해 도소매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 기업이다.

오스트리아 본사를 포함한 다수의 유럽 지사를 보유, 유럽에서 6,000여 개의 아시아 식품점과 식당, 현지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선양규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자체 최초로 유럽시장에 오프라인 상설판매장을 개설, 전남 농수산식품의 유럽시장 판매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2호점, 영국 런던 3호점 등을 추가 개설하는 등 유럽 오프라인 신흥시장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한남체인(플러튼) 1호점으로 시작한 전라남도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은 이번 오스트리아 판아시아 개설로 15호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해외 상설판매장을 통해 437만 달러의 매출 효과를 달성했다.

전남도는 이번달 추석을 앞두고 280만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는 미주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뉴저지주 한양마트, 버지니아주 k-마켓에 추가 상설판매장을 개설하는 등 연말까지 21호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전남 교통약자 이동권 크게 확대된다

전경선 도의원, 조례 개정…바우처 택시 지원

앞으로 전남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크게 확대된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은 '즉시 콜', 타 지역은 1일 전 '예약 콜'로 특별교통수단을 배차하고 있으나, 조례 개정으로 타 지역도 '즉시 콜'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바우처 택시) 운행 시에도 예산지원 근거와 사업구역 범위 등을 함께 규정했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국 도 단위 최초로 전남에서 시범 도입하는 바우처 택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365일, 24시간 즉시 콜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부모 봉양 귀농·귀촌인 주거개선 지원"

정옥님 도의원, 도정질문서 인구감소 대응 촉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8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지역 귀농·귀촌인 중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에게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재 전남은 곡성, 고흥, 보성, 함평, 신안 등 지방소멸 고위험지수 지역이 5곳이나 되고, 농촌 지역에 노인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남의 귀농·귀촌인들 중 부모를 봉양하는 세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주거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가족 내에서 돌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사회적 비용도 훨씬 적게 들 것이다"며 "전남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귀촌인들과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가족과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남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시의회, 사회복지시설 위문 릴레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릴레이에 나선 김용집 광주시의장이 8일 남구 서동 '분도와 안나 개미꽃동산'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학폭 예방 논의

광주자치경찰위, 5개 안건 심의·의결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일 광주경찰청 관계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회의를 열고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 단속을 포함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경찰서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평가에 관한 건 ▲2021년 하반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추진계획에 관한 건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에 관한 건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등 규칙 제정에 관한 건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포상규정 제정에 관한 건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위원회는 배달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에 대해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2021년 하반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하반기 집중 단속기간(2021년9월9일~11월30일)에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함께 이륜차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서고, 배달대행업체·요식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 치안대책' 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이번 종합 치안대책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방역적 경찰 활동을 포함하고, 112신고·교통량 등 치안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전면금지 시행에 관한 건 ▲지역주민 소통현장 간담회 결과에 대한 3건을 보고했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이 위험을 호소한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초·중·고교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대책 등을 함께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우승희 도의원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에 임명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당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협의와 대안제시 등 역할을 수행한다.

우 의원은 2019년 깨알정책대상·청소년희망대상, 2020년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2021년 한국지방정부학회 의정대상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수상 등 활발한 활동으로 전남도의회를 대표하는 정책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남도의회 11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도의회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전남도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 의원은 8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도민과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발전과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나윤 시의원, 지역특산물 육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 지역의 특산물을 지정해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6)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지역특산물 지정 및 육성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식생활의 고급화와 차별화가 진행되는 시점에 우리지역도 우수 특산품들을 더 육성하고 보급해 식품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주요내용은 '지역특산물'을 광주시에서 지속적으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 축산물, 임산물로 정의하고, 지역특산물의 구매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지역특산물의 지정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지역특산물의 품질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했다. 시장은 지역특산물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해 지역특산물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구매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